

인도네시아 건축을 찾아서(2)

My Travel Sketch of Indonesia

장순용 / 삼성건축사사무소

by Chang Soon-Yong

◇ 연 재 순 서 ◇

<1회>

1. 출발집합!
2. 발리 이야기
3. 팜박씨링 사원
4. 힌두교의 종교적 특징
5. 발리의 전통가옥
6. 코끼리사원

<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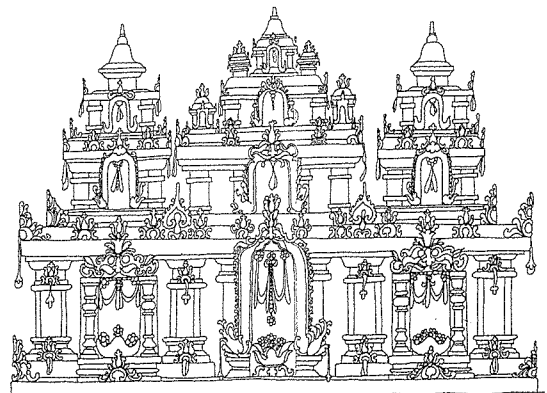
7. 족자카르타에서 학자 가이드를 만나다
8. 보로부드루
9. 빠원
10. 문두

<3회>

11. 프람바난
12. 세우
13. 플라오산
14. 칼리산
15. 공항의 해프닝
16. 발리로 향하다
17. 따만야운 힌두사원
18. 땃음말

7. 족자카르타에서 학자 가이드를 만나다

아침 일찍 기상하여 호텔내의 뷔페식당에서 아침을 들고, 공항으로 나가 비행기로 중부 자바섬의 족자카르타로 향한다. 발리 가이드인 권양은 공항에서 작별하고 저녁에 만날 것을 기약한다. 날씨가 흐려 비가 올 것이 염려되었지만 좋은 날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족자카르타의 공항에 내리니 벌써 안내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수면이 부족한 듯 약간 부시시한 얼굴표정에서 얼핏 그늘진 모습이 느껴진다. 권양의 주의사항도 있고 해서 선입관이 작용했는지도 모르겠다. 버스에 올라 답사지를 향하여 출발하는데 가이드가 자기 소개와 인사에 이어 일정계획을 알려주고 상세한 설명은 현



부조에 표현된 고대 자바의 건물모습

장에서 진행하겠다고 하며 개별적인 질문에 응답한다.

좀 특별한 인물인 관계로 그에 대한 신상정보를 정리하여 보았다. 성명은 방지환, 45세, 고향은 부산, 대학에서 식물학을 전공하고 열대식물을 연구하기 위하여 18년전에 인도네시아에 도착하여 밀립과 오지 등을 탐사하며 독신으로 연구생활을 하면서 현재에 이르렀고, 5년 전에 한국에 들렀다가 결혼하여 다섯살 박이 딸이 있다고 한다. 열대식물 분야에서는 한국내에 자기가 독보적인 존재일 것으로 자신감을 피력하며 금년 4월경에는 귀국할 계획이라 한다. 벌써 몇 곳에서 대학교수 초청제안도 받았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못하였고, 귀국후 실황을 파악하여 선택하겠다고 한다. 인도네시아 대학의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연구보조금으로는 생활을 꾸려나가고 가이드 활동으로 번 돈은 전부 촬영과 연구비에 투자한다고 한다. 열대식물 도감을 귀국해서 발간할 계획이고 원고와 사진은 작성, 정리되었으므로 출판과정만 남아있다고 한다.

식물학자가 족자카르타의 유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이 의외라 안내활동을 하게 된 계기를 물어 보았다. 답변인즉 현지의 식물학 연구가 어느정도 정리된 후 고대의 열대식물과 현재의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던 중 유적지에 조각된 식물이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조각의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파악이 안되므로 관계되는 경전을 독학으로 공부하여 조각에서 표현하려고 한 내용을 분석하고 해석하여 정리하다 보니 어느덧 일가견을 이루게 되었고, 현지의 여행사에서 자기를 알게 되어 가이드로 활동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식물학을 공부하다 보니 부전공으로 불교 경전에 대해서도 전문가 수준이 되었고, 한국에서 스님들이 성지 순례차 방문하여 불교역사에 관한 강의를 듣고 간 명성있는 제자들이 허다하다고 자랑한다.

기왕에 연구한 불교경전에 관해서도 별도의 출판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특히 불교신도인 모친의 슬하를 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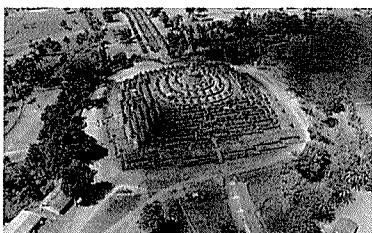
난 지 삼십여년이 되어 효도 한번 해 드리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면 모친을 포함한 노인들이 불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상세한 사진과 그림을 곁들여 큰 글씨의 책을 만들어 돋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볼 수 있는 책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약간 낫날이 시큰해지는 대목이다.

공항에서 받은 현지 신문인 자카르타 타임스에 한국관련 기사가 사진과 함께 등장한 것을 보았다. 한보사건과 황장엽씨 망명사건 그리고 긴장된 남북한 관계가 한꺼번에 소개되고 있었는데, 어느 것도 자랑스럽지 못한 사건이라 해외에서 불유쾌한 한국관련 뉴스를 접하고 보니 언짢은 기분이었는데 방지환씨를 만나게 되어 반갑고 또 고마웠다. 동행자의 공통된 의견은 그래도 한국이 버텨 나가는 것은 묵묵히 자기 일에 충실한 일꾼들이 곳곳에 숨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 짓는다. 안내자 덕분에 국가와 자신을 돌이켜 보는 계기도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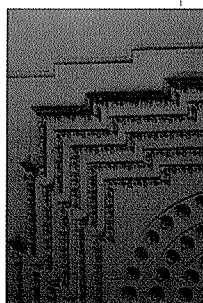
8. 보로부드루(Borobudur)

현장에 도착하여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휴대품에 주의하고 접근하는 상인에게 눈길을 주지 말 것을 당부한다. 눈길이 마주치면 끈질기게 달라 붙으므로 피곤하고 때로는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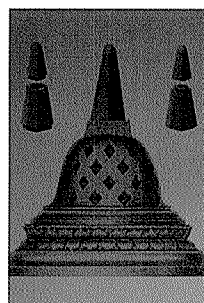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보로부드루 유적에 당도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수도는 자카르타이고 중부 자바섬(현지에서는 주로 자와라고 하며, 현지어대로 표기하는 한글 맞춤법을 따르면 자와섬이라고 하여야 하나 자바라고 익혀졌기에 예전대로 표기한다.)의 족자카르타라는 명칭의 관계성을 물어보니 자카르타는 위대한 승리의 도시라는 뜻이고 죽은 옛날을 의미한다고 한다. 따라서 구자카르타가 된다. 신라의 서라벌에서 서울이라는 명칭으로 발전된 것이 생각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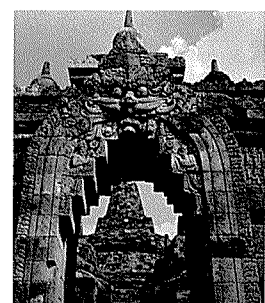
보로부드루 항공사진(관광업서에서 전제)



보로부드루 부분 평면도 : 전체의 1/4정도를 표현한 것으로 조각이 가득찬 회랑이 4줄로 둘러지고 원편 상단부에 스투파가 배열되었다



보로부드루 상부 원단의 스투파 입면상세도 : 마름모형 장식청을 두고 그 내부에 불상이 안치되었다



보로부드루 회랑의 홍예문 : 중앙에 귀면이 장식되고 지진에 견디도록 한 것인지 홍예석이 층단으로 내밀어 서로 물려 있도록 만들었다

불국사와 석굴암이 조영되는 시기가 8세기 중엽인데 보로부드루는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초반 사이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8세기에는 동양권에 불교문화가 폭발적으로 융성하는 시기인 것으로 짐작하게 된다.

이곳은 사원이 아니고 거대한 탑을 이루어 그 자체가 예배의 대상이 된다고 하며 123m 사방에 전체 높이는 42m에 달하는 것이었으나 복원과정에서 34.5m로 축소되었다고 한다. 석재는 화산암의 일종인 안산암으로 검붉은 색조이고 석질은 무른 편이지만 파편이 생기기 쉬워 조각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한다.

사방 대칭형의 평면에 각 면의 중앙부로 계단을 두고 층단형의 각형 기단부가 6단이 있고 그 위로 둥근기단이 3단이 있고 정 중앙에 원형 평면의 스투파가 올립되었다. 각형 기단부에는 층을 달리하는 회랑이 층층이 둘러지고 회랑의 좌우에는 축단하여 불경에 관한 조각이 가득히 부조되어 있고 곳곳에 작은 감실을 두어 작은 불상을 안치하고 있어, 회랑에서는 외부를 볼 수 없고 불경에 관한 조각속에 파묻히는 꼴이 되고 만다.

상단의 둥근 기단위에는 종모양으로 감실을 만들고 마름모형과 방형의 구멍을 장식으로 내고 그 안에 불상을 안치한 것이 특이하다. 감실내 불상은 첫단에 32구, 둘째단에 24구, 삼단에 16구가 배열되었고, 최 상단의 원형 기단위에는 종모양을 더욱 크게 확대한 형태의 스투파가 개구부 없이 불쑥 솟아 있다. 그 속에는 불상이 들어 있었는데 현재는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정상부에서 사방을 둘러보니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중앙에 배치된 형상이고, 전체적인 조형의 모습은 불국의 이상향을 만다라형으로 구성한 것이고, 마치 연꽃이 만개한 듯한 모습이다.

특히 불교에서 말하는 욕계(欲界), 색계(色

界), 무색계(無色界)가 하부에서부터 차례로 표현된 것이라고 한다. 중형의 불감이 배치되는 기단이 완전한 원이 아닌 둥그스름한 기단으로 만든 것은 완전한 무색계로 향하는 변화 과정의 모습이고 그 불감의 장식장이 하단과 중단에서는 마름모꼴로 나타나다가 상단에서는 방형으로 표현된 것도 같은 의미이고, 최정상부의 불감에 창문이 없는 것은 무색계에 도달하면 색계의 형태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교리적인 설명을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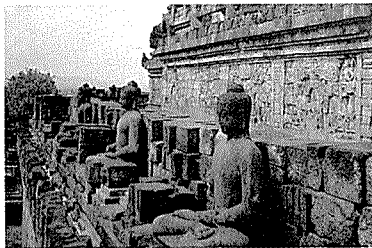
부조가 조각된 회랑에서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며 조각의 내용을 안내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열심히 설명하다가 주요장면에서는 기념촬영도 하는 등 전문가다운 열정이 느껴진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줄거리 전체를 듣다 보니 정신이 몽롱해진다.

기저부에는 숨겨진 기단이 있는데 여기에는 욕계의 추악한 모습이 새겨져있다고 하며 전체가 다 조각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미완성된 곳이 많다고 한다. 그 숨겨진 기단부의 한 귀퉁이를 노출시켜 공개하고 있다. 감춰진 기단의 구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론이 제시되고 있으며 근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리한 바로는 몇가지 복합적인 사연이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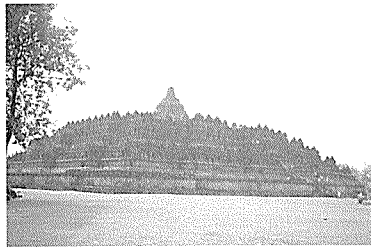
첫째로 건립초기에는 이 부분이 노출되도록 계획 되었고 각각의 조각 형태에 대한 지시문이 고대 인도어로 각자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둘째로는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던 중에 지진 등의 변이 일어나 붕괴되는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지층의 발굴결과 사용하다가 폐기된 석재가 성토층에 뒤섞여 있고 성토층에 교란된 모습이 있다는 것에서 추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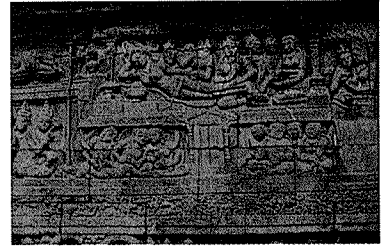
셋째로 붕괴가 일어난 후 구조적인 보강대책으로 기단부를 확대하여 덮어 씌우는 것으로 추가된 테라스가 만들어졌고 욕계의 추악한 모습은 감춰두는 것이 신앙을 위한



보로부드루 제1회랑의 조각상



보로부드루 전경 : 지내력이 약한 화산암 지반에 많은 석재를 쌓아 올린 것이 남아 있다는 것이 놀랍다



보로부드루 회랑 벽체 부조상

상징적인 의도와도 합치되기에 설계변경된 것으로 해석한다.

네째로 최초에는 단순히 석재로 벽돌 쌓듯이 축조하였으나 사고후 보강 방법으로 석재끼리 서로 물리도록 함으로써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유기적인 연결체재로 저항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유적은 1814년에 외국인에 의해 발견된 이후 세계에 보고 되었으며 발견당시에는 용암과 화산재로 뒤 영키고 정상부에는 수목이 자라 숲을 이루는 지경이었다고 한다. 1955년부터 유네스코 등의 협력으로 조사가 계속적으로 있었으나 본격적인 복원 작업은 1975년에 시작되어 10여년을 계속하여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되었다고 한다.

복원후 문제가 되는 것은 연판으로 방수층을 추가하여 각 층별로 배수관을 통하여 우수를 배출시키도록 했으나 석재의 부스러기들이 관로로 유입되어 폭우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지하의 습기가 방출되지 못하여 석재에 백화현상 등의 풍화현상이 곳곳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석재 사이로 자연 배수가 되었던 것을 인공적으로 배수처리 함으로 발생한 문제점으로 문화재 복원에 있어서 현대적인 공법의 사용에 신중하여야 한다는 경종을 울리는 셈이다. 이 유적 전체를 해체한 결과로는 석재가 백만개 정도이고 부피로는 29,000m³에 달하였고, 세척과 보존 처리를 한 석재는 17만개로 6,000m³이었고, 기초와 석축 보강과 배수로 구성 등에 투입된 콘크리트는 4,000m³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지역이 11세기까지 존속하다가 화산폭발의 재난으로 왕조가 동부지역으로 옮겨 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에 일개의 왕조가 이와 같이 엄청난 공사를 벌일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와같은 구조물을 만들려면 불교의 교리와 경전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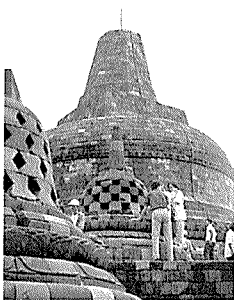
해박하고 조각의 형태에 대한 예술적인 안목이 있어야 하고,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는 지역에 축조하는 구조법에도 능통한 전문가 집단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지휘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석재의 성질에 기인한 때문인지 부조들은 원석을 축조한 후 조각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1,300여의 장면이 부조되고 432개의 불감과 500여구의 불상이 체계적으로 조합된 예술품이라는 점에서 경탄을 금할 수가 없다. 조각의 장면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동안에 일행과 같이 따라 다니며 유심히 듣는 사람이 있었다. 설명과 기념촬영이 끝난후 서로 인사하면서 알고 보니 경주시에 근무하는 학예사로 혼자서 불적 촬영을 위해 유적을 찾아다니는 중에 만나게 된 것이다.

지금은 성명이 기억나지 않지만 수년전에 문화재 설계관계로 낮이 익은 사람인데 외로운 고생길에 과감히 나선 순례자를 이곳에서 만나니 반갑고 가슴이 뚫듯해지는 느낌이 든다. 여정이 서로 다르므로 작별 인사를 하고 다음 행선지로 향한다.

9. 빠원(Chandi Pawon)

보로부드루 동쪽으로 1km 되는 평지에 위치한 빠원사는 사원으로 호칭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감실을 둔 소규모의 탑만이 있기 때문이다. 이 유적이 위치한 마을의 이름이 "마음을 정화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우리 식으로 명칭하자면 세심동(洗心洞)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탑이 보로부드루를 향한 서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점에서 독립된 사원이라기보다는 보로부드루를 참배하기 전에 통과의식을 행하는 장소일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감실내의 불상은 잃어 버린 지 오래된 것 같고 유적의 성격상 보살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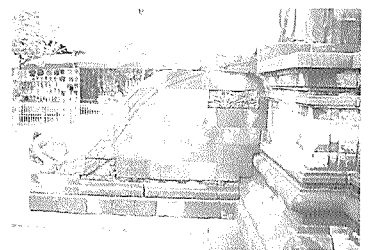
보로부드루 중앙 정상의 스투파 : 왼편에 마름모 형의 스투파가 보이고 한단 위편으로는 직사각형 형의 스투파 뒤로 창이 없는 대형 스투파가 정상부에 있다.



빠원 사원의 전면



빠원의 탑신 측면부



빠원의 계단 소매들 : 총적하여 소매들을 만들고 약어형 조각이 장식되고 기단부에 물딩이 다양하게 구사되었다.

1904년에 복원공사가 시행되었다고 하며, 평면 형태는 아자형(亞字形)으로 서측면에만 계단과 감실 입구를 두고 지붕의 모서리와 중앙부에는 소탑형의 장식을 배치하고 정상부에는 한 단을 높여 절병통 형상으로 만들고 있다.

이 유적의 평면을 정방형으로 만들고 지붕의 장식을 생략하면 한국의 석탑과 비슷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흥미롭다. 계단의 양측 소맷돌은 통재가 아니고 적층하여 만들었으며, 상단부에는 하늘을 향하고 있는 귀면이 조각되고 하단부에는 정면을 향하여 크게 입을 벌리고 있는 악어형상이 장식되어 있다. 보도부르두에서도 보았던 것이지만 그곳은 복잡하고 현란한 규모와 치장 때문에 관심을 두지 못했던 것이었으나 이곳에서는 새삼스레 유의하여 보게 된다.

기단부의 상하부에는 각형과 원호형이 혼합된 몰딩이 구사되었고 탑신 기저부에도 반복되고 있다. 발리의 초가집에서 기단이 정교하게 꾸며진 것을 생각하면 문화적 전통의 흐름이 끈질기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탑신의 받침형태에서는 고려초기의 석탑에서 보이는 탑신받침이 발생하는 것과 어떤 유사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궁리하게 된다.

감실 입구는 평판석으로 인방재를 건너대고, 그 위로 전체 윤곽은 지붕처럼 만들어진 귀면상이 조각되고 있다. 이마 부분을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만든 것이 한국의 귀면과는 대조적이다. 기단의 면석과 탑신부에도 보살상과 기타의 문양이 조각되었는데 사원의 문장처럼 사용되는 문양이 주목된다. 화면의 중앙부에 보리수가 있고 가지 위에는 연꽃을 추가하여 치장하고 정상부에는 일산을 펼쳐 세우고, 그 좌우로는 구름위에 비천상이 호위하며, 하부의 좌우로는 반은 사람이고 반은 새의 모습인 음악신(音樂神, Kinarra-Kiknarris)이 웅위하고 있는 모습이다. 부처의 열반과 극락세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이 문양은 다음에 답사하게 되는 힌두교 사원에서도 사용되고 있어 이유를 물어보니 불교의 경전이 힌

두교와 근원이 같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이슬람교가 기독교에서 파생한 종파라는 것과 유사성이 있는 모양이다. 귀국해서 힌두교와 불교와의 상관성에 대해서 알아보아야겠다는 숙제가 생겼다.

10. 문두(Chandi Mendut)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의 영향인지 영문 표기와 실제 발음과의 차이점이 느껴진다. 오우우 발음이 분간기 어려워 문도, 문두, 멘두, 문도, 문두 중에 어느 것인지 입속에서 중얼거리려 본다. 빠원 동쪽으로 2km이고, 보로부르두에서는 동쪽으로 3km 지점에 위치한 것으로 동향으로 배치한 점에서 빠원과 같이 보로부르두와 관련된 유적인 것으로 설명되고 있기도 하고 보로부르두보다 먼저 건립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역사 기록이 없고 유적지에서 발굴된 비문에 의해 역사가 단편적으로 조립되고 있어 역사의 증거가 소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 삼국사기가 남겨져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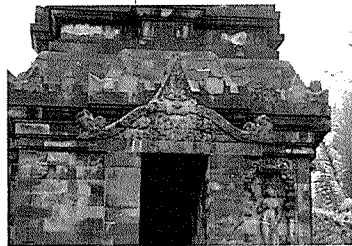
기본적인 모습은 빠원의 모습을 크게 확대한 듯한 인상이다. 1834년에 알려지고 1897년부터 10년간의 복원작업으로 현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8, 9세기 건립으로 추정하며 인도 굽타 시대의 사르나트 양식과 닮은 점이 있다고 한다. 탑의 상륜부는 복원되지 못하였고 감실 입구 상부는 층단으로 내밀어 쌓기한 개구부를 만들고 입구 전면에 좌우로 벽체가 구성되어 조각이 되어 있으나 이 부분도 미완성된 형상이다. 감실로 들어가는 입구의 왼쪽벽에는 동자들 틈에 행운을 관장하는 하리티(Hariti)보살이 묘사되고 맞은편 벽에도 잠발라(Jambala) 또는 크웨라(Kuwera)보살이 동자들 속에서 재물을 담은 자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묘사되어 부와 번영을 관장하는 신으로 상징된다고 한다.



빠원의 계단에 배치된 하늘을 향한 귀면상



빠원의 탑신에 조각된 부조 : 보리수와 음악신이 묘사되었다



빠원의 감실 입구 : 귀면상이 장식화 되었다



문두사원 전경 : 정상부분은 복원되지 못하였다.

감실내에는 삼존불이 봉안되어 있고 중앙에는 의자에 앉아 양다리를 늘어뜨린 모습으로 국내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이한 형상으로 보여진다. 좌우의 협시불은 한쪽 다리를 접은 모습의 반가상인데 국내재에서 유명한 반가사유상이 다리를 무릎위에 올려 놓은 것에 비하여 이곳에서는 무릎 옆에 발바닥을 대고 있는 모습이다. 열대 지역이어서 포개 놓으면 땀이 날까 염려되어 저런 형상으로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해 본다.

보로부드루를 위시하여 지금까지 보아 온 사원들은 공통적으로 대승불교적인 마하야나 스토리(Mahayana Story)가 조각으로 묘사되고 있는 특징이 있어 신도에게 교육용으로도 활용되었을 가능성도 느껴지고, 중세 유럽의 성당에서 신도들을 위해 성경의 내용을 조각으로 치장해 놓은 것과 동일한 발상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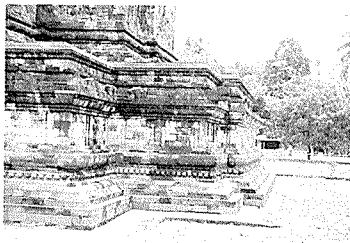
이 지역에서 보이는 유적의 평면이 한결같이 정방형에 중앙부가 다시 돌출되어 나오는 아자형 평면이 적용되는 까닭이 궁금해지는데 혼자서 궁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기본적으로 사방 대칭형의 만다라적인 평면인 것으로 생각되고 지붕에 장식한 소탑이 위에서 보면 만다라화에서 보이는 형태와 닮은 것으로 생각되고, 구조적으로는 돌출된 부분이 부축벽의 역할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만다라는 소승불교에 속하는 밀교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어렵듯이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이 초기에는 소승불교로 시작되어 대승불교로 바뀌게 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보니 이해가 됨직도 하다.

오전에 세곳을 답사하고 나니 점심 때가 되어 허기가 느껴진다. 날씨가 흐린 탓인지 생각보다 덥지는 않으나 습도 때문에 후덥지근하여 땀이 나면서 끈끈해진다. 식당에 가는 길에 은세공점에 들러 무료로 제공하는 음료수로 목을 축이고 둘러 보았다. 이 지역이 원래 조각과 세공기술로 정평이 있다고 하는데 역시 발리에서 보던 것보다는 세련된 듯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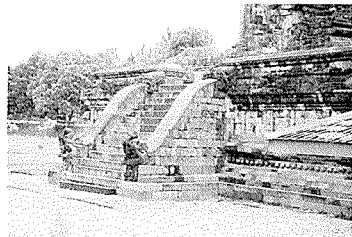
휴대한 자동카메라가 고장이 났는지 셔터를 누르기만 하면 플래시가 터져 촬영상태가 미덥지 못하여 속으로 고심한다. 차라리 수동식이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터인데 속수무책이고 촬영 때마다 플래시를 중지시키는 모드로 전환시키자니 작은 글씨가 잘 보이지도 않아 짜증이 난다. 자동 기능에 문제가 있으니 초점이나 제대로 맞았는지 걱정이고, 아무튼 찍어보는 수밖에 없다. 귀국해서 현상해 본 결과는 역시 불량사진 투성이 되고 말았다.

은세공품을 보고 있는 동안에 밖으로 나와 주변의 건물을 둘러 보던 중 세공점의 현관이 목조로 만들어 졌는데 이 지역 고유의 양식을 따서 만든 것이라고 하며 사모지붕의 상부는 급한 물매로 가다가 중단에서 꺾이어서 경사가 완만해 지는 꺾인 지붕 형태이다. 각서까래를 사용하고 처마에는 곡이 없이 직선적이다. 비가 많이 올 때에 낙수물이 기단밖으로 멀찍이 떨어지도록 배려한 것인지, 원시적인 초가집의 모습에서 유래한 것인지 궁금하다.

예약된 중국식당에 가서 뷔페식 점심을 드는데 편안히 즐길 수 있는 음식들이었다. 그런데 보로부드루에서부터 우리를 따라 다니는 비디오 촬영기사가 먼저 도착해서 상영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가이드를 통해 식당도 알아 둔 모양이다. 가이드인 방선생에게 물어보니 보로부드루가 유네스코의 기금으로 복원하면서 경내에서는 촬영과 관련해 일체의 상행위를 금지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까지 와서 보여주고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비용을 받고 녹화 테이프를 주는데 사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한다. 은세공점에서도 일행이 들어가 한두 분이 기념품을 사서 체면 유지는 했다고 안도하는 고참 회원들이 이번에도 역시 청하지는 않았지만 수고한 품을 보아서 하나 정도는 사주는 것이 좋겠다는 양반 체면론에 따라 결국은 하나를 사게 되었다.



문두사원 기단부



문두사원 계단부



족자카르타 은세공점 현관 : 지붕의 구성이 인도네시아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한다



문두사원 감실내 좌협시상 : 의상이 얇게 표현되고 다리의 구도가 한국의 것과는 대조적이다.